



Occasional Paper Series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Global Economy



Wendy Dobson

October 2005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필자 약력

Wendy Dobson

- 現 캐나다 Toronto大 교수
- 캐나다 재무부 차관, C.D. Howe 연구소장 역임. Shadow G-8,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Network(PAFTAD), 등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임.
- 'East Asian in Transition',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1998년도 오히라 마사요시賞 수상), 'Shaping the Future of the North American Economic Space and Taking a Giant' s Measures: Canada, NAFTA and an Emergent China' 등 주요논문 및 저서 다수.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오늘 강연 주제는 본인이 내심 좋아하는 주제이다. 본인은 1960년대에 인도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 시절 인도 인구는 현재 수준의 절반도 안 되었고, 당시 본인은 인도가 적당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 인도를 방문한 사람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강연에서 본인은 요즘 신조어로 탄생한 ‘친디아(Chin-dia)’ 와, 이 두 거대 경제가 세계경제권으로 편입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 즉 중국의 부상에 뒤이어 인도가 부상함으로써 두 개의 주요 경제가 10년 동안 급성장한 것에 대해 경탄해 하면서도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낀다. 현재 인도와 중국의 인구를 합하면 약 20억이 넘는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중국은 6위이다. 인도의 인구가 중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쯤 되면 인도 인구는 중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모두 30억으로, 아마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쯤 되게 된다.

2020년이 되면 두 경제의 평균 생활수준이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인구규모로 인해 이들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예측에 관한 보고서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03년에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의미하는 ‘브릭스(BRICs)’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달러기준으로 계산할 때 중국경제가 2040년에 미국경제 규모와 같아지는 것으로, 또 인도경제는 2030년에 일본경제 규모와 같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두 나라의 경제규모이다. 물론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두 미래의 거인이 세계경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것인가, 아니면 경쟁적이고 패권주의적인가? 본인은 이러한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인이 언급하고

* 이 글은 2005년 5월 10일 개최된 특별강연회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자 하는 것은 이 두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성과가 인도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첫째는 중국이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명하달 방식을 통한 경제구조 변화를 이룩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제조업을 선택한 반면 인도는 서비스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참고하여 인도보다 약 10여 년 앞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반면 인도는 동아시아에서 이미 오래전 인기를 잃고 버려진 수입대체정책을 고집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이유만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중요한 차이는 경제개혁의 기회가 왔을 때 정부가 대응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이겠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제도의 역할이 될 것이다.

중국이 경제강국이 될지 아니면 어느 인도 경제학자가 말했듯이 단순히 거대한 제조업자가 될지, 또 인도가 강대국의 하나로 간주될지 아니면 단순히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로만 남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는 이들 정부가 경제개입에서 적절한 시기에 손을 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 각 부문에서 정부개입이 만연해 있으며, 인도의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정부가 아닌 여러 단계의 정부에서 시장세력에 대한 간섭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기 전에 우선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한두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전후 일찍이 독립하였으며, 양쪽 다 소련식 계획경제모델을 채택했다. 중국은 사유재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까지 갔고, 반면에 인도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지나친 자본주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두 나라 모두 1950~1970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자국경제를 외부와 차단하여 단독적으로 해내고자 했다. 아시다시피 그 기간은 별다른 경제성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후퇴기였다. 그 기간 중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 있었고 인도는 1960년대 중반에 매우 심각한 흉년을 겪었다.

위기는 양국에게 경제개혁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양국 모두 누군가가 자국의 개혁안을 열린 창문사이로 들이 밀었다. 1978년에 모택동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대 뒤로 사라졌다. 중

국의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보다도 낮았다. 등소평은 일본에서 이미 벌어졌고 한국과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중대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그는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내놓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정책에는 매우 신중한 농촌지역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집단농장의 생산자들이 정부의 목표생산량 초과분을 가질 수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제약을 풀자 기대이상의 놀라운 생산량 증가가 나타났다. 그 후 경제특구를 통하여 세계 여타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내 다른 분야에서도 시장세력에 대한 자유화가 뒤따랐다. 1986년부터 시작된 WTO 가입노력은 이러한 경제개혁이 변질되지 않도록 국제협약에 묶어두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는 주로 소련과의 무역관계에 의지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그나마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재정확대 정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1980년대에 더욱 심해졌다. 그러다가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도 함께 붕괴되었다. 1991년에 인도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자 IMF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인도 재무장관이 지금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이다.

위기는 기회를 가져왔고 당시 싱 장관은 총리의 지지를 얻어 획기적인 정책안을 내놓았다. 그는 무역체제를 개방하고 환율결정체제를 자유화했으며 대다수의 수출입관련 규제도 풀었다.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관료 상부구조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성장궤도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여기서 네 가지 분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첫째, 거시경제 분야를 보면 중국의 기초가 더 튼튼했음이 분명하다. 중국은 인도나 아르헨티나처럼 연방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재정균형을 이루었다. 반면 인도는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지방정부는 더욱 심각하여 국내부채의 부담이 증가했다. 인도의 저축률 또한 중국의 절반수준이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현재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국이며 전 세계 총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가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이다. 중국의 상품교역은 GDP의 거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인도는 20%이다.

둘째는 각각의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이 적극 장려했던 것이었다. 해외동포인 화교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인도는 아직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최근에서야 정책을 전환하여 해외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중국 내에 수출생산기지를 마련한 다국적기업과 화교에 크게 의존하였다. 반면 인도의 제조업은 아직도 보호장벽 뒤에 자리 잡고 있다.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 라는 용어가 있다. 외환을 저축하고 정부가 허가한 수입에 사용하기 위한 외환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허가증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했다. 이에 대한 논리는 외환을 저축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부패를 심화시키는 길이었다. 따라서 인도가 이러한 '라이선스 라지'를 해체한 것은 1991년에 이룩한 경제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지난 후 두 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의류시장의 경우, 중국은 개방초기였던 1980년과 2000년 사이 시장점유율이 4%에서 21%로 증가한 반면 인도는 4%에서 20년 후 5%가 되었다. 그 외 제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980년 1%에서 2000년 18%로 증가했으나 인도는 0.33%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는 인도의 과도한 규제와 연관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수입을 어렵게 만든 바로 그 규제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인도 IT혁명의 숨겨진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인도 IT기업들 사이에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수입규제 때문에 컴퓨터 수입이 어려워지자, 현명하게도 인도 기업인들은 하드웨어를 아예 포기하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경제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가상의 산업을 창조해 낸 것이다.

세 번째 차이점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의 이용가능성이다.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모든 종류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능케 했다. 공원, 고속도로, 통신 인프라 등의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재정의 불균형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위한 환경이다. 인도는 활발한 기업가 정신의 전통과 산업을 갖고 있다. 인도 기업인들 중에는 외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인포시스(Infosys)의 창업자같이 인도 국내에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도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이와 비교되는 기업 성공사례가 부족하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 중국은 정부지원하의 R&D 연구단지에 대한 온갖 투자 사례를 거론하곤 하는데, 이러한 연구단지 조성에는 여러 단계의 정부에서 경쟁을 거친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또 정부가 그들의 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인센

티브와 실패에 대한 제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한국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 여러 가지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오늘날 중국의 생활수준(미 달러화 환산기준)은 한국의 1972년, 일본의 2차 대전 직후 정도 수준이고 인도의 생활수준은 중국의 개혁초기였던 1986년 수준이다.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에 관해 지난 10여 년 간 한국에서 벌어진 논쟁을 한국인들은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인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장기적인 성장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축적에 달려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과 기술혁신이며, 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이다.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투자보다는 무역을 개방하였다. 한국은 자본분배, 노동력 배치, 높은 교육수준의 인력양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시대를 거쳤다. 한국의 극적인 성장실적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경제는 산업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자본을 동원하고 위에서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은 변해야만 한다. 이 점을 파악하여 변화를 이루어 낸 한국은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다.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1~2년 전 지적했듯이 한국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냈다. 그것은 세련되고 통신판을 갖춘 실용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비생산적인 기업들로부터의 자원방출, 소액주주 권리확보, 기술혁신의 진전 및 확산, 창업장려, 지식기반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의 잠재능력개발 등 할 일이 더욱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의 장래 전망은 그들이 기꺼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앞으로의 현안은 그들이 민간부문 자유화로 가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이다. 두 나라 모두 높은 저축율과 자본축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며, 중국 은행부문의 부실대출은 중국의 시스템이 아직 자본분배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경제가 인도보다 훨씬 앞서있다. WTO 가입 시 중국이 약속한 사항들이 완전히 이행될 때쯤이면 중국은 신흥시장경제 가운데 가장 개방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규모 대비 수입비중은 약 30%로서 인도의 12%와 크게 비교된다. 수입품이 환영을 받으면서 사용된다는 사실은 중국경제 내에서의 경쟁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내의 경쟁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열 기업의 제품에 의해서도 강화된다. 중국 내 외국계열 기업들은 생산량의 약 60% 정도를 중국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경제에서 신기한 것들 중 하나는 경쟁에 대한 저항감이다. 본인은 인도인들이 '태도(attitude)'라고 일컫는 것에 여러 번 부딪혔다. 그것은 부패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암호 같은 것이다. 인도에서 가장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인과 관료 사이의 이기적이고 비공식적인 타협이다. 이와 같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타협이 지난 50여 년간 확산되어 왔다. 관료들이 시장규제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끝이끝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공무원 사회가 국가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과 동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기적 상호관계로 인해, 인도사회에서 부패되지 않은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인도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인도가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성장요인은 노동력과 노동시장 상황이다. 중국과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노동숙련도이다. 인도의 교육제도와 인도가 그동안 배출한 기술자,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 대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인도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등교육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가 수많은 기술인력을 배출해 내기는 하지만 기초교육 부문에서의 성과는 미약하다.

초등교육 통계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2000년도 무렵의 경우 중국에서는 98% 어린이들이 5년간의 초등교육을 받았지만 인도는 그 수치가 47%이다. 남녀 간 문맹률 차이도 인도가 더 확연하여, 인도의 여성 문맹률은 남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된다.

고용구조도 아주 다르다. 인도 민간부문의 고용은 총인구의 10%미만이지만 중국은 약 20%이다. 중국의 경우는 하급제조업의 고용폭발이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과 농촌에서 이주해 나오는 사람 등 수천만 명의 인구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모두 아쉬웠지만 중국은 향후 25년간 3억 명의 농촌인구를 이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도에

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지에 대한 희망이 없다. 농촌지역 유권자들에 의해 여당이 밀려났던 2004년 5월 선거가 주는 메시지는 ‘일자리와 맑은 물, 교육과 의료서비스’였다. 그동안 만 모한 싱(Manmohan Singh) 정부가 할 수 있었던 대응책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간 100일의 유급근로를 약속한 것뿐이었으며, 그 약속마저도 약화된 상태이다.

농촌의 문제점을 거론하려면 경제의 장기성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기술발전과 효율증대이다. 본인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언급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역할이 민간부문의 틀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보상해주는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노동인력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대단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예가 중국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인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장려하여 인건비를 사실상의 고정비로 만들어버린 지난 50년간의 정책이다. 인도에서는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 따라서 이것이 신규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부문의 고용창출 인센티브를 얼마나 저해하는지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금융시스템 역시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튼튼한 금융시스템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금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수익률을, 기업인 및 혁신적인 사업가들에게는 자금을 제공한다.

인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금융시장을 갖추고 있다. 인도는 아마도 신흥시장 경제권에서 가장 다양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이다. 모든 아시아 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은행권이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대다수 은행들은 아직도 정부소유이다. 인도 증권시장에는 37개 은행이 상장되어 있으며 59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지난 12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본인은 실제로 어느 경제 간행물이 59개 은행의 투명성, 이익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순위를 책정하여 비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는 은행들의 실제 성과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보험, 소비자 대출, 소비자 할부금융, 투자은행, 대행업, 포트폴리오(portfolio) 관리, 벤처캐피탈, 외환상담 등의 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공기업이나 사기업 형태로 섞여 있다. 또 인도에는 여러 곳의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고

모두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감독 하에 있다.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 자본시장이 없으며 채권시장도 없다. 여태까지 중국의 증권시장은 도박장으로 여겨졌다. 은행권은 대규모 국영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내저축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아직 없는 관계로, 사실상 자금이 비과세소득을 창출하는 사금융 투자를 위해 은행권을 이탈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없는 중국에서 벤처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중국에서 증권시장에 신규상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해야 하며 간혹 밴쿠버의 TSX 벤처 거래소에서 하기도 한다. 소규모 기업들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가 아니면 자금조달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7년 1월까지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중국은 부실대출 정리에 노력중이며 국영은행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2006년 말까지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연 중국 당국은 자국민 대우를 적용하여, 기존의 자국 금융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중국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내생적 혁신능력도 또한 매우 흥미롭다. 인도는 2차 대전 직후 사유재산권을 폐지하지 않았고 기업가정신의 전통, 상당한 수준의 고등교육제도, 성숙한 금융제도를 갖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혁신을 위한 내생적 및 자생적 능력에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간기업들이 관료와 공직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은 닫힌 사고를 가진 채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을 창출하는 교류와 경쟁보다는 후원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둔다.

정치체제도 또한 다르다. 중국의 경우 민간부문 부상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자율성 증대와 함께 앞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경제개방과 정치적 통제 사이의 긴장을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정말 흥미로운 문제이다.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엑스포는 과거에 행하지 못했던 방향으로의 개방을 중국에게 요구할 것이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의 통제능력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이 과연 민주화를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흥미롭고 관심 있는 앞으로의 이슈들 중 하나이다.

앞서 논의되었던 2030년과 2050년의 중국에 대한 향후 전망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가? 그것은 후퇴나 좌절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대만이나 북한문제등으로 인한 정치적 후퇴, 조류독감 발발과 같은 자연재해적 후퇴, 혹은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등의 좌절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중국의 능력에도 달려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개혁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에서 은행은 또 하나의 정부 부처와 같다. 또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이 은행에 가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여기에 신용평가나 리스크(risk) 관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미래는 금융시스템의 현대화와 정부개입 축소에 달려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환율과 석유수급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단기적 이슈인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금까지는 중국과 인도 양국 경제의 장기성장 요인으로서 자본, 노동, 기술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중국과 인도의 부상, 그들의 취약점과 장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분명한 점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라는 것이다. 양국 모두 유서 깊은 문명과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실로 위대한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양국 모두가 장차 세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향후 얼마동안 이들은 국경 밖의 모험을 차단할 국내 문제들에 열중할 것이다. 우선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문화, 스포츠, 경제관계 개선을 환영하는 입장일 것이다. 사실 본인은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파키스탄이 인도를 바라보는 눈은 캐나다가 미국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코끼리가 이웃에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욱 가깝게 밀착돼 있을수록 양국 모두에게 좋다. 의미심장한 것은 금년 4월 뉴델리에서 중국과 인도가 경제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아시아 전 지역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북미인들도 차츰 깨닫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힘의 이동을 의미한다. 의외의 재앙이 없는 한 중국과 인도가 내부지향적으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단지 아시아 지역에서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인지는 그들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부를 창출해 낸 OECD 국가들로부터 중국과 인도가 배울 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시장친화적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민간부문의 높은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설사 양국이 장차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극적인 전망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국가는 될 것이다. 그들의 경제성장 성과와 정책은 세계화된 공급망과 점증하는 상호의존도 때문에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외의 나라에게도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인도가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채택해야만 우리 모두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들 양국은 반드시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양국이 WTO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아직 G8 회원국은 아니다. G8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중국과 인도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특히 북미의 경우는 자동차 부문에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완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다. 수입국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보호주의적일 것이 분명하다.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책은 중국 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이에 적응하는 것이다. 인도 또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로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제조업이다.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겠지만, 기회는 비교우위원칙이 작동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평론가들이 ‘결국 중국이 모든 물품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유행이 되었다. 심지어 중국인 스스로도 제조가능한 모든 물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줄 때마저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원칙에 의해서 중국은 무역상대국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물품만 생산할 것이고, 생산하기에 비효율적인 물품은 수입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지식기반 산업 심화를 통해 중국과 인도가 수입해야만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야 하고, 각국 정부는 생산 및 국제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관료적 장애요소나 세금부담을 없애야 한다.

생산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서 고급시장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기술력과 창조력 있는 노동인력을 배출해 내는 교육제도가 비교우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아시겠지만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경쟁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분야 내에서 투자 및 협력의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경쟁의 확대를 의미하나 동시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의 기회가 더 많아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교우위원칙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가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갈 경우 우리는 더욱 빨리 적응해 나가야만 한다.

질 의 · 응 답

[질 문] 이번 강연에서 귀하는 제도의 정치적인 면과 경제문제를 거의 모두 다루었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는 있었으나 증명되지 않았던 점을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인도가 역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써 육체노동에 대한 거부감이다. 인도가 철학과 종교 면에서는 우수하나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반감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와 귀하가 언급했던 부패문제, 그리고 온갖 진부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육체노동 분야가 아닌 서비스 부문과 소프트웨어 등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관심 있는 것은 인도가 어떻게 그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이다.

둘째로, 중국은 인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가를 훌륭히 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지방 불균형으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 또한 과거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가?

[답 변] ‘육체노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인도 농부들은 중국 농부들만큼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인도는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과도한 자본주의와 자국경제에 대한 외세참여를 회피하거나 절제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나타나는 색다른 철학의 틀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운동과 고용창출을 위해 방직과 같은 노동집약적 기술을 활용한 무하마드 간디를 고려해야 한다.

네루(Nehru) 수상은 온정주의의 틀 속에서 고용창출을 지속했다. 인도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규제 틀 중 일부는 노동착취를 막기 위해 해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낭만적인 과거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는 잘못된 규제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많다. 연정 형태의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에, 현재의 전략은 이러한 법규를 우회하여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인도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직물과 의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제 다자간 섬유협정이 2005년 1월에 종료되었으니 인도에게는 주요 직물 생산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낡은 규제를 피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는 극복하기 매우 힘든 과제다.

따라서 인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중 하나는 중국과 같은 현대적 고용의지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는 농촌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역동성이 충분하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과연 지방이 과도하게 취약해질 것인가? 지역불균형이 중국이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는 본인도 동의한다. 중국 내륙의 문제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경지역을 보라. 도시권만 해도 3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다. 규제철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부기관의 결정이나 관료와의 관계보다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에 의존하는 틀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전통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해안지방처럼 수출시장과 가깝지도 않은 중국의 지방에서 그런 일들을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러나 양국의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중국은 대도시들의 급성장을 통해 지역적 불균형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문제점이 신속히 개선됨으로써 불안정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인도는 정기적인 선거인단 선거를 통하여, 농촌의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벌으로써 그들을 축출하는 안전밸브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인도가 당면한 과제는 농촌에서 이주해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인도가 이 문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문제가 경제붕괴를 가져오거나 체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 귀하의 발표 내용 중, 골드만삭스의 'BRICs' 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즉 미국 달러화 표시로 GDP를 측정할 때 중국은 2040년에 미국의 GDP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인도는 2030년에 일본의 GDP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된 부분이다. 이러한 예측을 위한 기본가정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가?

[답변] BRIC 보고서의 가정은 대단한 것이었다. 인도의 경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사용한 가정은 인도 노동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인도는 노동력 증가에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서 창출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가정한 것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이 공급될지는 확실치 않다. 인도는 부적당한 노동력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질문] 얼마 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저명한 경제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1820년의 중국 GDP는 세계 총 GDP의 33%였고 당시 인도 GDP는 16%였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총GDP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그 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실 이 두 나라에 대한 '부상'이란 용어는 잘못된 것으로 '재부상'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인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기에 중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국민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당면한 수많은 문제점들은 이처럼 아주 강력한 의지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요한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각각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본인은 중국의 1인당 GDP가 \$4,000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낙관적으로 본다. 그 때까지는 정치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답변] 귀하는 상당히 낙관적인 것 같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의문 중 하나가 중국이 지구상 최강의 경제력을 지닌 세계 최고일 때 왜 계속 성장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정답은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답일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고 성장 자체에 대한 가치부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인간 복지 차원에서의 성장에 대해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분명 경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중앙의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경제로부터 손을 떼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점을 확신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질문] 본인의 질문도 무역에 관한 것이다. 최근 양국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과 인도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둘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셋째, 두 나라 모두 아세안(ASEAN), 한국, 일본 등의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EU나 NAFTA처럼 대규모 지역블록을 가까운 장래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변] 중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뛰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주변국들이 중국과 인도에 대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위협적인 전망임을 깨우쳐줄 것이다. 오히려 양국은 아세안을 활용할 것이다. 또 '10+3' 회의가 확대될 것이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나아갈 길이다.

중국-아세안, 인도-아세안, 일본-아세안,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국가는 농업, 자동차, 전자 산업 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인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농업이다. 이는 다른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겪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유인데, 중국경제는 농업 구조조정 의사가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도 농업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농업을 제쳐놓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는 없다. '긴밀한 경제관계' 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농업 문제를 빼고서 전체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질문] 귀하는 환율정책과 유가급등이 단기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앞으로 중국과 인도

두 경제는 계획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만 가끔 단기성 후퇴를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자국경제 규모를 2000년~2020년 동안에 4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2020~2050년 사이에 다시금 4배로 확대될 것이다. 그럴 경우 50년 후의 중국경제는 2000년에 비해서 16배가 커지게 된다. 만약 중국경제가 현재와 같은 역동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이다.

본인의 우려하는 부분은 이들 두 거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원자재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밀어낼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에 불이익을 줄 유가를 비롯한 여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원자재 가격 중 하나가 유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귀하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기대했었다.

둘째, 귀하는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수출주도형이 될 것임은 확실하며 인도경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고집하는 한, 화폐가치의 저평가와 경상수지 흑자 방향으로 시스템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경제가 연방 재정적자 의존성에서 탈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인은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환율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지만 귀하는 이러한 것이 단기적인 문제이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변] 본인이 환율 및 유가 문제를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과 관련하여 중국이 이미 어느 정도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상품수출국으로서 너무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적인 반응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압력은 단지 수입국에게서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 국가들에게서도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지금과 같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환율제도를 언제 고칠지는 알 수 없다. 본인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외부의 압력이 있어야겠지만 조심스럽고 정중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제까지 중국의 관심사항은 경제개발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환

을 및 거시경제 안정이었음이 분명하다.

중국이 시행해야 될 중간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유출 측면에서 자본 계정을 개방하여 외환고의 재활용을 피하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해외자산 취득이 가능해진다. 해외 자산 취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석유와 원자재 생산 자산이다.

본인은 세계석유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격할당에 의해 시장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양국 모두가 전 세계의 석유자산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에 국영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 조사가 여러 가지 오류와 투자실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국영기업들은 이와 같은 조사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개발에 능숙한 것도 아니다. 석유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에 능숙한 기존 기업들이 많이 있다.

현재 석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예상외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것인데, 시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을 예상하지 못한 수요를 목표로 하여 가치사슬에 따라 원유생산 및 정유 활동을 하고 있던 시장에 이외의 수요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대체, 그리고 수요보다 더 큰 공급의 반응으로 인해 유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가용 석유와 원자재를 계절스럽게 삼켜버려 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귀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 다시 말하지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원자재와 새로운 공급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난 30~4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 및 일본처럼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들이 조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 대체원자재를 찾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질문] 지난달 본인은 인도에서 만모한 싱 총리를 만났는데, 그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사공 일 이사장께서는 싱 총리의 친한 친구이다. 귀하는 사공 이사장께서 싱 총리에게 무엇을 자문해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귀하는 인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나

간디(Sonia Gandhi)가 장차 인도 총리가 될 것으로 보는가?

[답 변] 소냐 간디는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본인이 사공 이사장이라면 만모한 싱 총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귀하가 본인에게서 배울 것은 많지 않지만 인도가 한국에서 배울 점은 많다.'

그중 많은 부분이 정부가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것과 관계있다. 싱 총리는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두 분은 모두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정책이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정말 어렵다. 한국도 어렵지만 인도는 열배나 더 어렵다. 뉴델리의 연합여당 정부는 부분적으로 공산당의 지지로 지탱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는 광범위한 정치적 이해 집단을 만족시켜야만 된다. 인도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속도가 것처럼 느린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질 문] 한국은 특히 한국의 오류를 인도가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경험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오류를 경험했다. 중국은 한국의 많은 점들을 교훈 삼아 특히 자본계정 개방 시에 한국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귀하는 환율문제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중국이 환율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회성의 환율조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달리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 현물고정제(spot-peg system)였던 한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 통화바스켓(basket)제로 바뀌었고, 그 후 환율변동 폭을 확대하였다가 마침내는 환율변동 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변동환율제도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외부인이 중국에게 곧장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만약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 바트화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 비하면 태국의 경제규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외부세계가 중국에 대해 제대로 자문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정책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IMF는 중국이 적절한 환율제도를 구상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곧장 변동환율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 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정리되고 재무제표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종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오류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외부세계는 중국에 대해 지원과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답 변] 너무나 동감한다.

[질 문] 귀하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인 생각에는 시장 및 기술의 축적효과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신흥시장과 기술혁신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변]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슈페터(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와 같이 경제 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그들이 성공의 이득을 영유하고 실패의 발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실패와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경제정책 결정을 정부가 통제하던 경제에서 복잡하고 현대적으로 산업화된 지식기반 경제로 부상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필요한 것이다.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Global Economy*

Wendy Dobson

The topic this morning is one that is quite dear to my heart. I lived in India in the 1960s when the population was less than half what it is now. At that time, we thought the infrastructure in India was adequate. Any of you who have been to India recently, though, would not share that view today.

I am going to talk about “Chi-ndia”, as the word has been coined, and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large economies into the world economy. We are fascinated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very rapid growth of two major economies over a span of ten years, as India has emerged following China’s emergence. But we are also a little fearful. Together, India and China these days account for just over 2 billion of the world’s population. India is the 12th largest economy. China is the 6th largest. By 2050, because India’s population is growing more rapidly, India is going to have the larger population. By then, both China and India are going to account for about 3 billion people, which will probably be about 30% of the world’s population.

Some say that by 2020, even though their average standards of living are much below those of ours in the OECD economies, the very size of their populations will mean that their economies will be very important in “power” terms. There have been some projections of which some of you are probably aware. In 2003 Goldman Sachs economists published a paper called “The BRICs”, meaning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The report projected that the size of the Chinese economy in US dollar terms would reach US levels by 2040. And India’s economy in US dollar measures would reach Japan’s level by 2030.

So size is what catches our attention. Of course, it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what the governments of these two future giants see as their roles and objectives in the world. Will their objectives be peaceful and cooperative, or competitive and hegemonic? Those are large questions that I am not going to be able to answer this morning. What I would like to talk about are some of the assumptions upon which these projections are based.

I don't think anybody would disagree that, as things stand today, China's performance is superior to that of India.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One is, of course, that China is not a democracy so it's much easier to accomplish economic change on a top-down basis. Another is that China chose manufacturing and India chose services. A third one is that China looked at its neighbors, not least of them Korea, and adopted the export-led growth model a decade or so before India. India persisted with an import-substitution policy, which had long before been discredited or overtaken in eastern Asia.

I will argue that, by themselves, none of these three explanations explains the differences in China and India's performances. If I look back, I would say that what was crucial was that windows of opportunity for economic reform opened and governments responded. If I look forward, I would say that what's crucial in the future will be?and this won't sound strange to a Korean audience?the role of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reform process.

The test of whether China will become a great power or simply, as one Indian economist put it, a great manufacturer, and whether India will become a power to be reckoned with or will simply be a great democracy, is whether governments can bring themselves to withdraw from intervening in their economies in time. In China's case, government intervention is still pervasive in every aspect of the economy. In India, it's not just one government, but governments at a number of levels that cannot seem to stop meddling with market forces.

If we look back before we look forward,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might be of interest. First, both countries became independent early in the post-war

period. Both adopted Soviet style planning models. China went so far as to completely abolish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ownership, while India accepted capitalism but set out to curb what were seen its excesses through government oversight and controls. Both closed their economies for most of the 1950-1970 period and intended to go it alone and to do it themselves. That, as we all know, was a period, not only of indifferent economic growth, but also disastrous setbacks: the Great Leap Forward and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and very serious crop failures in India in the mid-1960s.

In both cases, crisis opened windows for economic reform. Someone in each case put a reform package into the open window. In 1978 Mao and his crowd had left the scene. Economic growth was slower than China's population was growing. Deng Xiaoping had noticed what was going on in Taiwan, Korea and what had gone on in Japan. He introduced a profound set of policy changes, beginning with the "one child" policy. It didn't stop there. His new policies included very cautious reform in rural areas where producers that used to be part of the communes were allowed, as long as they met government quotas for production, to keep the excess and sell it. There was an unexpected and dramatic production response to that freeing of restraints. What followed was the cautious freeing of market forces elsewhere in the economy, starting with an opening 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the special economic zones. The initiative to join the WTO, which goes back to 1986, had as one of its intentions to lock those reforms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so that they could not be changed.

This was a period during which India was muddling along, relying heavily on its major trading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and, increasingly in the 1980s, on government stimulus to keep growth going. But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in 1990, India's main export market went with it. In 1991, India had a balance of payments crisis when it actually ran out of foreign exchange and had to go to the IMF. This was when Manmohan Singh, the current prime minister, was the finance minister.

With the crisis a window of opportunity opened and Manmohan Singh, with the

support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time, introduced radical economic policy changes. He liberalized the trade regime, freed up the exchange rate and removed a number of restraints on importing and exporting. What he was unable to do was to abolish a bureaucratic superstructure that had been built over the past 50 years.

So growth paths in the two countries developed in slightly different directions and I will touch on four areas of difference. One is in macroeconomics. China definitely has a better base. It has a federal structure, like India's or like Argentina's, but it has managed to keep fiscal balance. India, on the other hand, has had persistent fiscal deficits, particularly at the state level, and therefore a growing burden of domestic debt. India also saves at about half the rate that China does.

As we all know, China is now the world's third largest trading nation, after Germany and the US. It accounts these days for about 6% of world exports. India, in contrast, accounts for about 1%. China's trade in goods is nearly half (50%) of its GDP. In India, it's about one fifth (20%).

A second area of difference is the role of FDI in each economy. This was something where China has encouraged. It has provided special incentives to the diaspora to come home and start businesses. India is still ambivalent about FDI. It only recently changed its policies toward its diaspora to encourage them to return home.

China's emergence as the workshop of the world has relied disproportionately on the diaspora, as well as on multinationals who have set up export platforms in the country. Indian manufacturing, on the other hand, still exists behind a bit of a wall of protectionism. You've probably heard of the term "the license raj". To save foreign exchange and to allocate it to uses of which the government approved importing required permits or licenses. While the rationale was to save foreign exchange, in practice it was a way for corruption to become rather deeply seated. So dismantling what the Indians call their "license raj" was one of the biggest economic changes that was accomplished in 1991.

But even so, more than a decade later, the two countries' participation in world export markets differs. In the garment market, for example, China's share between 1980, at the beginning of liberalization, and 2000 grew from 4% to 21%. India's share was 4% at the beginning and 5% at the end of 20 years. In other manufacturing, a whole basket of manufacturing activities, China's 1% share in 1980 grew to 18% by 2000. India's didn't change at all: it was a third of one percent (0.33%) and there it stayed.

Some of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relate to the over-burden of regulation in India. Yet those regulations,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to import goods, had a perverse effect. They are one of the factors behind the IT revolution in India. There are interesting anecdotes told by the IT firms in India. The import restrictions made it so difficult to import computers in the 1970s and early 1980s, that entrepreneurs had the bright idea to forget about hardware and concentrate on software. In effect, they created a virtual industry in order to get around the obstacles in the economy.

The third difference is the availability of infrastructure. China's savings have made it possible to invest in every kind of infrastructure. Finding the financing to build parks, highways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s difficult because of the fiscal imbalances of governments.

The fourth area that's really important is the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dia has a vibrant entrepreneurial tradition and sector. Some Indian entrepreneurs have returned from abroad, but some of them, like the founders of Infosys which has become a global firm, grew in India despite all the obstacles. So far, China lacks comparable entrepreneurial success. When you ask about it, you're pointed to all sorts of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R&D research parks where there's competition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to create such institutes. But government provides the funds and because it is pervasive in their activities, influences the incentives to succeed and the penalties of failure.

How should we understand future prospects? There are a number of lessons to be learned from what you have learned here in Korea. If we put things in perspective, living standards in China today relative to a US dollar-measured standard would be where Korea was in 1972 and where Japan was immediately after the war. India today is where China was in 1986 when it was still early in its reform process.

The debate in Korea over the last decade or more about how you have to reform the economy to sustain economic growth in the long-term is something that perhaps you take for granted. But it is really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what will happen in China and India. Most Koreans would agree that long-term growth depends on the accumulation of inputs in both labor and capital, but to sustain it over the long haul what really matters is technology, technological change and innovation, as well as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is welcoming and encouraging.

Korea opened up to trade?not investment?but trade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order to catch up. Korea went through a period where government's role was very important in mobilizing capital, allocating labor and, not least, developing an educated labor force. The growth achievements here that were so spectacular have been put in perspective. As the economy industrializes, it becomes more complex. The role of government in mobilizing capital and perhaps directing things from the top ha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is and the changes you've taken in Korea make you almost unique in eastern Asia.

There's still a great deal to do. As *The Economist* pointed out a couple of years ago, Korea has developed its own brand. It's cool, it's wired and it's pragmatic. But Koreans would also be the first to say a lot more has to be done to release resources from enterprises that aren't productive, to ensur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develop and to diffuse innovation, to encourage new business formation and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 potential that is the basis for a knowledge-based economy.

So the future prospects for India and China come back to their willingness to restructure and modernize their economies. The question for the future is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restructure in ways that free up the private sector. Each has high savings rates and capital accumulation but, as I said, India has a chronic budget deficit. The non-performing loans in the banking sector in China tell us that their system there is not yet very good at allocating capital.

China is far ahead of India, though, in the competitiveness of its economy. Its WTO commitments, when fully implemented, will make it one of the most open of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For example, China's ratio of imports to the size of its economy is around 30%, compared to India at around 12%. The fact that imports are welcomed and used enhances competition in the Chinese economy. Competition in China is also enhanced by the sales of foreign affiliates that are located there. They sell about 60% of what they produce into the Chinese market.

In contrast, one of the really remarkable things about the Indian economy is a reluctance to compete. I've been repeatedly struck by what Indians call "attitudes". It seems to be a code word for corruption and vested interests. One of India's most persistent constraints is the informal self-serving arrangements among politicians and bureaucrats. This you-scratch-my-back-and-I'll-scratch-yours arrangement has grown over the past 50 years. Bureaucrats have taken their role in regulating markets very seriously. The civil service, instead of keeping an eye on what should be the national interest, has tended to join with politicians in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Is India different than other countries in this regard? There is an argument that, yes, India is different.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hey have to overcome is that there is really no aspect of Indian life that hasn't become corrupted and dependent on this mutual self-serving relationship. That's an obstacle to sustained growth in India.

Another source of growth is labor and what goes on in labor markets. If there's anything these two countries have in abundance it is labor. One of the main

differences is in labor skills. We hear a lot about India's education system and the engineers, particularly software engineers, that have been produced. The fact is that India's education system is, if anything, distorted toward post-secondary education. India produces hundreds of thousands of engineers and technicians, but its accomplishments in basic education are dismal.

The statistics in primary education show this. Around 2000, in China 98% of children had five years of primary education. In India the number was 47%. The literacy differential between men and women is very much more marked in India. Illiteracy among women tends to be about twice what it is among me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is quite different, too. India's formal sector—that is, the private or market sector—employs less than 10% of all Indians. China's formal sector employs about 20%. The explosion of jobs in low-end manufacturing in China has helped to absorb tens of millions of people from the state-owned enterprises as they've restructured and thrown people out of work and those moving from the countryside.

In China, some of you may be familiar with a commitment to move 300 million people from the countryside over the next 25 years. In India, there's no hope of a commitment like that. The message in the May 2004 election, where the incumbent government was thrown out by the voters in the countryside, "We want jobs, we want clean water, we want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response that has been possible so far by Manmohan Singh's government has been to promise everyone who wants 100 days of paid work a year, and even that commitment has been watered down.

Addressing the problems in the countryside inevitably depends upon the long-term growth of the economy. In the long-term the key determinant is technological change and greater efficiency. This is what brings me back to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conomy. Mainstream economists would agree that government's role is to set the framework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a social safety net and to encourage and reward innova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hown a greater willingness to provide its labor force with basic educational skills and to promote flexibility in labor markets. For example, in China employers can hire and fire. One of the huge problems in India is 50 years of policies promoting small businesses and making, in effect, labor an overhead cost. Once you've employed somebody, it's almost impossible to fire them, especially if you're a small business. So you can imagine what kind of disincentive that is to job creation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which is supposed to be the engine of new jobs.

Another dimension that's also very important is the financial system. Strong financial systems benefit an economy. They give savers realistic rates of return and provide entrepreneurs and innovators access to funds.

India has financial markets that most of us would recognize. They probably have the most diversified financial system in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Banks are dominant in India, as they are in all of the Asian economies, and many of the banks are still state-owned. There are 37 bank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s in India. As many as 59 banks, whether they're listed or not, are sufficiently transparent that when I was in India in December one of the year-end business publications actually listed, ranked and compared all those 59 banks on their transparency, profitabi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annual performance of banks is one that can be monitored.

In India you can also find insurance, consumer financing, consumer leasing, investment banks, underwriting, portfolio management, venture capital and foreign exchange advice all through a mixture of both state-owned and private entities. There are several stock exchanges, most of which are highly automated, and all are supervised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You probably know more than I do about China's financial system. It doesn't have a capital market yet. There is not a bond market. Up until now, Chinese stock markets have been considered to be casinos. The banking system consists of the large state-owned banks. They are not yet able to intermediate domestic savings.

Indeed, funds are leaving the formal banking system in order to do private placements that generate income that is tax exempt.

Without capital markets, it's very difficult to undertake venture financing in China. If you want to do an IPO, you have to do it either in Hongkong or Singapore, or sometimes they come to the TSX Venture Exchange in Vancouver. The small entrepreneurial firms have a very difficult time finding financing if they can't come up with the financing from within their family or among their friends.

Yet, China is committed to open its financial system to the rest of the world by January 2007. That's why there is a big push to clean up bad loans and push the state-owned banks toward IPOs. We'll see what happens. I rather doubt China will be able to solve all the problems in its financial system by December 2006. How, using national treatment, can the Chinese authorities allow foreigners into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without severely disadvantaging the incumbent Chinese firms?

The endogenous capability to innovate is also very interesting. India did not abolish private ownership back in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and has an entrepreneurial tradition, a well-regarded post-secondary education system and a more mature financial system. At the present time, these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an endogenous self-generating ability to innovate. In China, there are far too many accounts, still, of private sector entities that must rely on bureaucrats and officials. They are in silos, more concerned about their patrons than about the lateral exchange and competition that generates new ideas and new innovations.

The political systems are also different. There are some really interesting questions, particularly about China, as to how, with the emergence of a private sector and therefore more autonomy for business, the Beijing government will manage the inevitable tensions between economic liberalization and continued political control. The Olympics in 2008 and the Shanghai exposition in 2010 will require China to open in ways in which it has not done before. With the spotlight

on the country, will there be pushes toward more democracy, where the authorities worry they will lose control? That's one of the very interesting issues for the future.

Will China fulfill the predictions for 2030 and 2050 that I talked about at the beginning of my lecture? It will depend on whether there are setbacks: political setbacks because of Taiwan or North Korea, or natural setbacks like an avian flu outbreak or an environmental meltdown. It will also depend on China's ability to modernize its financial system. This is not something you can do overnight.

As you know in Korea, it's not easy to take a bank which, in China, used to be just one more government department, and reform it. If somebody from a state-owned enterprise, which was another government department, needed funds, he would go to the bank "department" and say, "Give me some money." No is very different from a credit adjudication; no risk management. China's future economic prospects depend very much on modernizing the financial system and managing the withdrawal of the state from the economy. The two go together.

You may expect me to address exchange rates and oil demand. I see both as short-term issues. Since I am running short on time, we can discuss in the Q&A if you wish.

What does this mean for the rest of us? I've been looking at capital, labor and technology as sources of long-term growth in the two economies. With the emergence of China and India and with their weaknesses and their strengths, what does all this mean for the rest of us? Obviously, there are both threats and opportunities. Both countries have venerable civilizations and histories where they've seen periods of greatness. Each is very interested in developing a role for itself in tomorrow's world.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re will be a focus and preoccupation with domestic development that will probably preclude adventurism outside their borders. Starting with India, the warming of cultural ties, sports and economic ties between

India and Pakistan are very much to be welcomed. In fact, I would suggest that India and Pakistan should get serious about negotiating an FTA. Pakistan looks at India in the same way that Canada looks at the US: there's an elephant next door that really affects our prospects. The more closely knit we are economically, the better off both will be. Significantly, in April there was an accord signed in New Delhi between China and India. That may turn out to be a watershed leading to closer cooperation throughout Asia.

This means there is a power shift of which you are all aware, but which we in North America are slowly becoming aware. Neither China nor India barring an unimaginable catastrophe, is going to turn inward. They're going to become poles and hubs of economic activity within the region and with each other. But whether they will just be big players in this region, or they will become global powers, will depend on how they resolve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conomy.

The lesson they can learn from the OECD economies and their rise out of poverty to sustained wealth is that economic growth, to be sustained, requires market-friendly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a large amount of autonomy for the private sector. Even if they fall short of dramatic predictions that they will be the world's leaders in the future, they are still going to be major systemic influences. Their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cies are going to spill over onto their neighbors and, possibly beyond, because of global supply chains and growing interdependence.

We all have a stake in them adopting good policies and good institutions. It's obvious they should be included in global economic management institutions. Both are now members of the WTO, but neither is yet a member of the G8. A very obvious expansion is required in that area.

Finally, they will provide us with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ll of us are going to face challenges from China in manufacturing, and for us in North America particularly in the auto sector. China is already exporting auto parts and will soon be exporting auto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response of the

importing countries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he obvious response is to try to protect. The desirable and sustainable response is to adjust and to move out of direct competition with Chinese manufacturers. India is also likely to become a major force in biotechnology and IT, but it's too soon to see or to predict what kind of impact that's going to have on the rest of us.

The challenges are from China in manufacturing at the present time. The opportunities will come through?and it's not surprising that an economist would say this?the operation of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 It's quite popular for commentators to say, "China's eventually going to produce everything." Sometimes, even the Chinese themselves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want to produce everything that can be manufactured.

But by 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 China will produce goods it makes relatively more cheaply than its trading partners and it will then import what it is relatively less efficient at producing. There are substantial opportunities there. We in the more advanced economies have to get our costs down, increase our productivity and deepe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at produces the goods and services that China and India will need to import. Governments have to get out of the way and remove bureaucratic obstacles and tax burdens that raise the costs of production and of doing international business.

For producers, it means moving upmarket into higher value-added activities. The top priority there is going to be people. The education systems that produce skilled and creative workers are going to be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As you might expect, China and India's emergence mean greater competition but also a plethora of opportunities, both for cooperation and for investment in those areas where we have relative strengths.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 will require that, as China and India continue with their economic reforms, we will have to adjust faster.

Questions & Answers

Q You covered just about everything in the institutional politics and economy, but one aspect you didn't cover that has been talked about but never proven is that one of the problems that India faced historically is their aversion to physical labour. While being excellent in philosophy and religion, they had a certain aversion toward labor.

Combining that with the corruption you mentioned, with the litany of problems India has, it's almost a wonder how they got to where they are today, despite, of course, the fact that they did manage somewhat in the service sector or with software, rather than on the physical labor side. More interestingly, how do you see them moving forward to overcome all those tremendous amounts of difficulties?

Secondly, the Chinese have been much more efficient, but nonetheless face enormous problems with the regional differences, the sheer magnitude and size, though they've done a magnificent job so far managing this entity as a government. The task they have going forward is also such that, just looking back at the past percentages and projecting into the future makes me wonder what that future path might be. What are your thoughts?

A I'm not sure I would agree with the characterization of "aversion to hard labor". Indian peasants work just as hard as Chinese peasants. But there is a different philosophical framework that comes out of the Indian experience of colonialism and a desire to avoid or curb the excesses of capitalism and foreign involvement in the economy. Put that together with Mohandas Gandhi using labor intensive techniques such as spinning to create jobs as well as non-violent protest against the British.

Prime Minister Nehru continued in that framework of paternalism and job creation. Part of the regulatory framework that India still has to throw off comes from this romanticized past that, to avoid the exploitation of labor, you

should not allow them to be fired. So there's a lot of traditional Indian manufacturing that is hobbled by the wrong kinds of restrictions. It's almost impossible to take this on head on with a coalition government in a democracy.

Instead, the current strategy is to try to find a way around these laws and a set of measures that allows for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to take off in India. Textiles and apparel are very important. Now that the Multi-Fiber Agreement has come to an end in January 2005, India has an opportunity to become a major textile producer. The challenge is to find a way to work around those old regulations. It's a very difficult challenge to overcome.

So one of India's biggest challenges is to be able, with some certainty, to make the type of modern employment commitment China has. There is enough dynamism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that it provides employment for the people from the countryside.

With respect to your second question, are regional strains going to be too severe in China? I agree with you that regional disparities are probably one of China's big challenges. Again, it's the role of the state that is the problem in the interior of China. If you take the area around Chongqing, there are more than 30 million people just in the urban area alone. How do you remove the restrictions? How do you create frameworks that rely on market forces rather than on relationships with officials and official decision-making? How do you do that in a part of China that has traditionally not had good infrastructure and is not close to export markets, as the coast is? Those are not easy problems to solve.

But where both countries are now, China has a good chance of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through rapid growth in major centers. They won't "solve" it, but they may be able to ameliorate the problem fast enough to avoid instability. It seems that India, with its regular electoral elections, has a safety valve that can throw out the incumbents as punishment for not

improving the conditions in the countryside. India's challenge is to create jobs for people who want to move out of the countryside. It i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India's going to solve any time soon.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bring about a collapse of the economy or have systemic implications.

Q In your talk, you mentioned the Goldman Sachs "BRIC" report. You mentioned that, measuring GDP in US dollar terms, China would reach the level of US GDP in 2040 and that India would reach the level of Japan GDP in 2030. I suppose the basic assumptions there are rather optimistic. Do you agree with this?

A I think the BRIC assumptions are heroic ones. For India, the assumptions the Goldman Sachs study used were that India has a labor force that will continue to grow. That's true. Over the long-term, India will have momentum from its labor force growth. But where will the demand for that labor be created? Goldman Sachs' prediction just waves its hand and says that, by assumption, the jobs will be created. I'm not sure, though, that there will be the labor available that will be in demand. They could have very high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ia, with a good supply of the wrong kind of labor.

Q The World Bank supported a study by a well-known economic historian some time ago. In the year 1820, the Chinese GDP was 33% of the world. At that time, India was 16% of the world. Today, China is about 4% of global GDP. So these two countries have that much potential. In fact the "emergence" of these countries is the wrong word; this is a "re-emergence" of these economies. They have this great potential. If you look at it from this side, you will tend to be a bit more optimistic, particularly about China. I don't know much about India, but, to me, the Chinese policy makers and the Chinese people as a whole work hard to get the old glory back in a way. The many difficulties they face today may be overcome by this very strong commitment.

This is a critical question.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is. There are almost as many “China pessimists” as there are “China optimists”. I am an optimist until China reaches a per capita income level of about USD 4’000 or so. The political system can go on until then. Afterward, I don’t know, and in the mean time, anything can happen.

A You are very optimistic. One of the really interesting questions in economic history is, when China was on top of the world?it had the largest, strongest economy on earth?why didn’t it continue to grow. The answer on which most would agree is probably the correct one. It had to do with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fact that growth, for itself, was not valued. Growth in terms of human welfare was not valued. That’s certainly not the case today, but what’s important is whether or not they can come to grips with the withdrawal of the state from the economy in ways that would allow for a vibrant private sector while still keeping central political control. As I have said, there are some significant reasons for doubt.

Q I have a question about the trade side. During the recent historic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reported that they discussed a free trade agreement. How soon do you think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se two countries will be put in place? Second, considering Korea’s heavy dependence on exports to China, how do you expect this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mpact outsiders, particularly other Asian countries?

Third, both countries are very much interested in a free trade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like ASEAN, Korea or Japan. So do you expect in the near future to see the whole of Asia formed into one large regional block, like the EU or the NAFTA?

A I don’t think that China and India will jump into the negoti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I think that their neighbors will let them know that that’s a very frightening prospect. Rather, both of them will use ASEAN. The 10+3

will expand. Seoul will have the summit in December that includes India, as well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That's the right way to go.

I'm a skeptic on the China-ASEAN, India-ASEAN, Japan-ASEAN or Korean-ASEAN FTAs. Wouldn't it be better for all to sit down and have an area-wide free trade agreemen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negotiate because of sensitivities in agriculture, autos and electronics.

The other reason a China-India FTA is probably not in the works is because of agriculture. That's the same reason why every other FTA has trouble. China is the one economy that is willing to adjust in agriculture. India isn't. Most of the ASEAN countries are having a hard time with agriculture. Yet you can't have an FTA without agriculture. You could have a "closer economic relationship" or some other euphemism, but you cannot have a full trade FTA.

- Q** You stated that the exchange rate policy issue and the oil price hike are short-term problems. I tend to believe that both economies will tend to grow more or less along the planned path, but for occasional short-term setbacks. The Chinese economy, between the period of 2000 and 2020,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lan is to quadruple its economic size. According to, once again, the Chinese government scenario, the Chinese economy will quadruple once again between 2020 and 2050. So 50 years from now, the Chinese economy will have grown by 16 fold, compared to its size in 2000. If the Chinese economy continues to maintain its current dynamism, its economic size will continue to increase very rapidly.

My concern is that the sustained growth of these two giant economies will crowd out other economies in the commodities market. Do we have to prepare for the continued sustained rise of oil prices as well as the price of other commodities, to the detriment of such economies as Korea? I would have expected to hear from you that the oil price is probably one of those prices that will continue to rise.

Secondly, the Chinese economy will certainly continue to be led by exports. I think you're indicating that the Indian economy could follow that path as well. So long as they adhere to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there is a systematic bias toward undervaluing the currencies and the current account surpluses. Also, we know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 US economy to be weaned from its dependence on federal budget deficits. So I would have said that exchange rate policy issues would tend to persist throughout the region. You say, though, that this is likely to be a short-term problem.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A The reason I see both the exchange rate regime and the oil price as a short-term problem is that I assume that, with respect to export-led growth in China, China is already reaching some kind of limit. It is so dominant as a goods exporter now, it is going to provoke protectionist responses. It is going to come under increasing pressure, not just from importers but from its competitors as exporters as well. I don't see export-led growth at the same rate in China's future. It has to move to domestic demand-led growth.

I don't know when China will fix or modernize the exchange rate regime. I'm not one to say they should be shouted at by others. There should be external pressure, but it should be carefully and respectfully applied. China has to find a solution that serves its interests. So far, its interest has clearly been stability in the exchange rat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economy.

There are intermediate steps I think the Chinese have to take. They are starting to talk about recycling their reserves by liberalizing the capital account in respect to capital outflows. This way, not only Chinese people but also Chinese entities could acquire assets outside the country. One of the big hunts for outside assets is for oil and commodity producing assets.

I'm persuaded that we have a world oil market and that it works according to price rationing. The Chinese and the Indians are both in a search for oil-

bearing assets around the world. Their state-owned enterprises are leading that search. I see that as going in the direction of making all sorts of mistakes and bad investments. These companies are not good at exploration. Yet they are not good at development. There are lots of established entities in the oil market that are good.

What we have in the oil market right now is an unexpected surge of demand because of China's rapid industrialization. I think the market will adjust. The unexpected demand appeared in a market that was producing and refining activities?all along the value chain that were aimed at demand that didn't anticipate China. So the oil market has to go through an adjustment. It will. We will see low oil prices again because of conservation, substitution and a supply response that is larger than demand.

You're absolutely right that, under a very optimistic scenario, China and India will gobble up available oil and other commodities whose prices will rise. Again, we've repeatedly seen over the last 30 or 40 years that when prices rise, substitutions take place and new supplies appear. I don't see that process will be any different going forward. For commodity-poor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part of the adjustment is to find substitutes and to increase efficiency.

Q I was in India last month. I met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He would like to come to Korea and learn about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Il SaKong is a good friend of his. What do you think Minister SaKong would advise or teach him?

Secondly, you know about India so well. Sonia Gandhi still has full power. Do you think she'll become prime minister in the future?

A No. She will not be prime minister. Now, if I were Minister SaKong, I'm sure he would say to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You don't have a lot to learn from me. But from Korea, India has a lot to learn."

A lot of it is about the withdrawal of government from the economy. He could learn a lot from the difficulties you're having in Korea. Both are among the world's best economists. They will think the same about the policy issues. But the political realities are really difficult. They are difficult in Korea, but they are ten times more difficult in India. The governing coalition in New Delhi is held together in part by the support of the Communist Party. So India has a very wide range of political interests that have to be satisfied. That's what keeps change in that democracy moving at such a slow pace.

Q I think we in Korea can share a lot of our experiences, particularly our failures so that they will not repeat them. We made so many mistakes. China could learn a lot from us, not to repeat our mistakes, particularly when opening capital accounts. You mentioned the exchange rate issue, but the important thing is how China will gradually change its exchange rate regime. A one-shot re-evaluation is not critical. What's critical is how you move from a dollar-peg system to a floating system. There are many different steps. In that process, they could learn a lot from our experiences. In the mid-1980s, we used a spot-peg system, then a fixed-, then a basket, then we widened the band, then we finally abolished the band and it became a fully floating system.

Today, it's totally irresponsible for outsiders to push China to move directly to a fully floating system. That's totally irresponsible, not only for China but for the rest of the world. Can you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China has a financial crisis?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was triggered by the Thai baht crisis. The Thai economy is such an insignificant economy when compared to China. It's very important for the outside world to advise China properly. The Chinese policy mix should be ready for this. In this regard, the IMF should really advise China how to design a proper exchange rate regime. Don't just go directly to a floating system, which I don't think they will do. In doing so, you have to clear your financial sector and all these balance sheet problems have to be solved. The whole package of programs is very, very important. They can learn a lot from Korea's failures and the outside world

can advise and support them. That is true for India, too.

A I couldn't agree more.

Q You said the role of government is critically important in China and India. It seems to me the cumulative effect of market and technology is critically important. What is your personal opinion about emerging marke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 The role of government in innovation is to change institutions in the economy as per Schumpeter is creative destruction. The government must allow more autonomy for the private sector to experiment, to keep earnings of successes, to live with failures and to allow failures to occur. Those kinds of changes are necessary if the economy is trying to emerge from one where the state has had control over economic decision-making to a complex modern industrial and knowledge-based economy.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